

福祉向上과 生産增大

김 현 기
大韓商工會議所 · 전무이사



너 나할 것 없이 모두 느끼고 있는 얘기지만 최근의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만한 拔群의 속도로 경제부흥의 기틀을 힘차게 닦아나가고 있다. 1960年代 以前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국가적인 曙光이 비칠 것 같지가 않았다. 해방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한반도에는 6·25 이라는 일진광풍이 휩쓸었고 자유당·민주당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은 後進國이라는 낙인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다.

그 무렵 이 땅의 失業率이나 각 공장의 稼動率이라는 것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많은 수의 공장 문이 대낮에도 닫혀 있었고 높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生産施設이 낮잠을 자게되자 자연히 노동인구의 시세는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수요와 공급은 전혀 맞아들어가지 않았다. 大學을 나오고도 이력서 한번 써보지 못하는 고등실업자가 量産되었으며 상당수의 노동인구들은 生活이 아닌 <生存>을 위해서 전전공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以後 정부당국의 과단성 있는 경제개발계획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동안 우리나라는 눈에 띄이게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각 생산 시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國內需要뿐만이 아니라 世界로 눈을 돌리는 輸出入國을 지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화단결을 되새기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다.

실로 이것은 夙昔之感이 새로운 얘기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수준은 날이 갈수록 현저하게 向上되고 있다. 전국의 四方八方으로 뿔린 고속도로는 이

땅을 일일생활권으로 압축시켰고 특급열차를 타도 하루 낮을 꼬박 달려야하던 서울←→부산간이 이제는 불과 4시간반의 거리로 좁혀졌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실감이 나지 않으면 일요일 아침의 거리풍경을 잠시 떠올려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훨씬 지름길이 되리라. 확실히 근래의 Leisure 産業은 단군 이래의 호황인 것 같다. 바캉스나 단풍시즌이 되면 웬만큼 서둘러가지고는 관광 버스를 예약할 수가 없다. 일요일이 되면 전국일원의 유원지나 명산대찰은 울긋불긋 화려한 行樂人口들로 붐비고 여름철의 해운대나 대천 해수욕장은 사람이 밟고설 땅이 없다고까지 이야기 한다.

좀 장황한 설명이 되었지만 나는 여기서 모든 봄이 누구에 의해 조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려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당국의 과단성 있는 정책이 가장 주요한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賞讚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곧 全國에 산재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흘린 땀의 댓가라는 점이다.

軍에 있어서의 별(Star)이 무수한 兵士들의 피땀 위에서 탄생되는 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경제발전은 이들 사업장 근로자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의 댓가라는 等式이 존재하게 된다.

확실히 이 時點에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産業全般事業場에서는 종업원의 福祉라는 점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지내오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각각 原因의 이유가 따를 수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측에서본다면 이러한 분야는 우선 생소하기 짝이 없었고 일이 있고 일할 근로자가 있고 그것을 운

일본의 신문에 실리는 求人廣告를 그렇게 부러워하던 시절이 옛그제 같은데 우리 나라도 요즘은 본격적인 求人難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사람은 많다.

영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선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一次元的인 발상에서 피차간 떠날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의 國力이 자라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發想은 중대한 시련을 自招하게 되었다. 손쉬운 예로 가정부를 들어보기로 하자. 예전의 가정부라는 것은 일종의 수양딸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은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다. 더 풀이해서 말을 하자면 給料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근자에 들어서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 좀 과장을 해서 말한다면 가정부로 인한 主從의 개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다. 가정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인 되는 쪽에서 이러저러한 매력적인 조건을 걸어야만 한다.

가족이 많지를 앓다. 기저귀를 빨아 대야하는 아이가 없다. 노친네가 없다. 연탄을 쓰지 않는 보일러 집이다. 일가친척이 별로 없다.

맞벌이하는 집이므로 낮에는 한없이 자유롭다. 가정부 방은 물론 따로 있고 TV도 별도로 있다. 아침은 전식구가 식사를 하지 않고 빵과 우유로 대신한다. 월급은 얼마얼마 인테 몇달 후에는 어떻게 올려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절대로 필자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코멘트가 아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이러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서도 참

한 가정부를 구하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는 점잖은 친구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의 焦點인 福祉쪽으로 주의를 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일본의 신문에 실리는 求人廣告를 그렇게 부러워하던 시절이 옛그제 같은데 우리 나라도 요즘은 본격적인 求人難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사람은 많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찾아지는 세상이 이미 아닌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逆潮현상이라고 할까. 신문지상에는 어제도 오늘도 求人廣告가 실리고 있고 내일도 실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各社의 신입사원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사원모집공고를 수십 혹은 백여만원씩 들여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지상에 터뜨려도 언제나 기대이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기대이하의 응시자들마저 고자세여서 그 옛날 자신들이 입사하던 무렵의 主從關係개념은 터럭만큼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다. 입사도 하기 전에 수습기간은 얼마동안이냐고 묻는 것은 둘째치고 초봉은 얼마냐, 보너스는 얼마냐, 법정휴일은 모두 쉬느냐, 오바·타임 수당은 어떻게 나오느냐, 승급승진 규정은 어느냐……등등을 거침없이 따지고 나오는 데는 그만 아찔할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다.

좀 안된 얘기일지는 몰라도 나는 이것이 오

오늘날 같은 경제부흥이 계속되고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점점 高揚되면 될수록 고등 동물인 사람은 보다 더 사람의 대접,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늘날의 당연한 추세라고 주장하고 싶다. 일에 사람이 매달리던 시절은 이미 옛날의 얘기이다. 오늘날 같은 경제부흥이 계속되고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점점 高揚되면 될수록 고등 동물인 사람은 보다 더 사람의 대접,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아까 소개한 친구들은 신입사원전형에 관해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결코 그런 좌표에서만 한가롭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人力資源의 스카우트戰이 한층 가열될 것이 확실하다. 분명히 인간은 上向指向的이다.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해주기만 한다면 과감히 現在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더우기 해방이후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신식교육을 맞본 근대의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병들은 기성사회인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自由個人主義 사상이 뿌리깊게 물들어 있다. 이들에게는 보수적인 종속의 개념이 애초부터 전달되지를 않는다. 내가 業主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주느냐 하는 것보다 業主가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더 신경을 곤두세운다. 만약 이것의 대차대조표가 (-) 쪽으로 나올 경우 철새처럼 그 일터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상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몇가지의 요인들 때문에 오늘날의 각 기업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종업원의 福祉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자

신의 기업을 지탱해주고 키워주는 종업원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從業員들이 逸脫해버릴까봐 교육지책으로 내세운 善心이건 어쨌건 간에 여하튼 오늘날의 시대적인 조류는 <종업원의 福祉>에 관해서 필수불가결한 방향을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1953년에 勤勞基準法이 제정된 이후 국가에서는, 一方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一方으로는 각 사업체를 보호하는 신중한 양면정책을 취해온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발전도상국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勞使間의 대립이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세월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었다. 예전같으면 아침 몇시에 출근하면 된다는 通告만으로 족하였지만 요즘은 各社의 통근버스들이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종업원들을 사업장으로 모셔가고 또 퇴근을 시켜주는 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방출신자를 위해서 기숙사시설을 잘 꾸며놓는가 하면 월차휴가·년차휴가등으로 사기를 올려주며 정규직원과 대등한 상여금을 지급해준다. 향학열에 불타는 종업원들에게 야간학교를 연결해주는가 하면 직장차체 내에 관인 학력인정코스를 두어—마음 먹기만 하면 직장도 다니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대우·신분·작업환경·후생 등을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기업
을 더욱 발전시키는 起爆劑가 된다는 사명감
이 먼저 요구된다.

이러한……等々の 여러가지 종업원에 대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따져볼 때 그것이 결코 기업主의 이익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는 인간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있다. 확실히 이 얘기는 맞는 말이다.

자신의 福祉에 관심을 가져주는 기업주에게 종업원이 해보일 수 있는 것은 자기직무의 필연적인 忠實뿐이다. 그것은 또 결과적으로 自身을 위하는 길이며 자기자신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첩경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관한 限 전심전력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쉽게 연상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歐美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週5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루 근무를 덜하기 때문에 生産性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오히려 더 愛社心을 갖고 하루의 근무시간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 연소시키려는 풍조가 생겨서 오히려 기업주쪽에서는 이의 실시에 만사지탄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모든 사업장에 고루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노동집약성이 강한 단순노동들이 거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은 시간이 곧 黃金이요 黃金이 곧 時間이라는 등식이 분명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종업원의 福祉를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복지가 생산증대라는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우선은 使用者측의 따뜻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先決문제이다. 근로자의 대우·신분·작업환경·후생 등을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起爆劑가 된다는 사명감이 먼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측의 마음가짐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일 자체를 확대해석한다면 그것은 곧 公益을 위해서 하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國家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중대한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다.

거듭 생각해보거나와 우리나라는 요즘 단군 이래의 開明을 위해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생산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억불의 수출고지를 딛고 올라서가는 우리의 저력에는 비단 國內뿐만이 아니라 國外에서 더 선망과 흥미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國富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全國의 각 사업장에서 이 시간에도 땀을 쏟고 있을 수많은 근로자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야말로 國력배양의 기틀이며 수출산업의 꽃이요 산업발전의 기수이다. 이들이 진실로 잘 살때 우리 모두가 잘사는 것이며 이들이 참으로 평안할 때 우리 모두도 걱정근심이 없이 안락한 生活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